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35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2018년 무술년 들어 첫번째 백고좌법회인 제35회 백고좌법회를 3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1995년 처음 시작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1~3회씩 개최하고 있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에게 익숙한 법회입니다. 이번 제35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신행 생활에 꼭 필요한 팔만사천, 금구성언의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장



● 30일차

4월 3일
특별법문
활안스님
한국 금강선원 총재



● 35일차

4월 8일
특별법문
진오스님
경산 대국사 주지



● 40일차

4월 13일
특별법문
철운스님
평택 도원사 주지



● 100일차

6월 12일
보살계 수계법회
혜능스님
울산 릉림학당 주지

◆ 일시 : 2018년 3월 5일 ~ 6월 12일(100일간)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 매일 오전 9시 기도, 법문 11시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28일차	4월 1일 回	혜성스님	함안 삼불사 주지	35일차	4월 8일 回	진오스님	경산 대국사 주지
29일차	4월 2일 回	혜조 비구니스님	서울 관음암 주석	36일차	4월 9일 回	지운스님	성주 자비선사 회주
30일차	4월 3일 回	활안스님	한국 금강선원 총재	37일차	4월 10일 回	성산스님	선방 정진
31일차	4월 4일 回	마정스님	서울 용마관음사 주지	38일차	4월 11일 回	가섭스님	조교종 포교부장
32일차	4월 5일 回	도오스님	경산 경흥사 주지	39일차	4월 12일 回	원일스님	대구 진명사 주지
33일차	4월 6일 回	대현 비구니스님	칠곡 정암사 주지	40일차	4월 13일 回	철운스님	평택 도원사 주지
34일차	4월 7일 回	효상스님	가창 선흥사 주지	41일차	4월 14일 回	양관스님	동화사 승가대학장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아름답게

2018. 4 | Vol. 280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대적광전 신중탱화 모연중

법왕사에서는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삼신불 봉안에 이어 마지막 불사로 신중단 후불탱화를 모연합니다. 법당을 최적의 기도공간으로 장엄하기 위한 마지막 불사인 신중탱화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동참금 : 1인 10만원
- 탱화 하단에 시주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 문 의 : 종무소 766-3747



| 3층 만불전 신중탱화



| 새롭게 모실 4층 대적광전 신중단



대한불교
조 계 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Vol. 280호

- 04 깨침의 향기**
중생은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2)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6 비슬산방**
새봄에 생각하는 부처님의 자비 · 실상 주지스님
- 08 법왕논단**
정도가 상실되면 불행이 이어진다 · 본원스님
- 12 경전의 세계 – 초기경전**
넓고도 깊은 ‘깨달음의 보고’
- 16 우리나라 사찰 건축물**
토속신과 어우러진 한국불교의 전각
- 20 명찰 순례**
‘효의 근본사찰’ 경기도 화성 화산 용주사
- 24 해오름 요양원 – 함께 알면 좋아요**
뒤늦게 찾아온 마음의 감기, 노년기 우울증
- 28 법왕사소식**
- 31 법왕사게시판**
- 33 해오름소식**
- 34 해오름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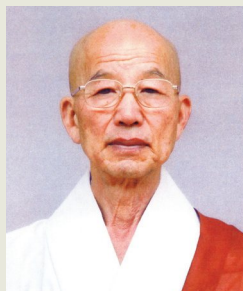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62(서기 2018)년 4월 01일 발행 | 통권 280호 | 종무소 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모도, 영일, 상철, 자행, 자윤, 강선옥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발원합니다.

중생은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2)

원공당 정무 대종사



2~3세는 제1 반향기인데,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공연히 짜증을 내고 울기도 합니다. 이는 아기 마음에 독립심이 강하게 싹트다는 증거인데, 이때 너무 억압하면 평생 정서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돌봐주어야 합니다.

유아기는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때입니다. 특히 3세까지는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며, 엄마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이 시기에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풍부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친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이때의 습관이 평생 간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살아있는 인생 교과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심성의껏 대하는 것을 보여주고, 평상시에 질서·배려·예의·인내·극기의 습관을 길어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유대감은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장 신성한 의무와 보람은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육아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한량 없이 귀중한 기회입니다.

자녀의 운명은 어머니들의 손에 달려 있

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머니들의 감화와 모본(母本)이 자녀들의 성품과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오직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반사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대지 같고 바다 같은 거룩한 모성은 자녀를 훌륭하게 기를 뿐만 아니라, 남편의 인생도 열어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많아 아주 어릴 때부터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주며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의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정립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고 건실한 삶을 살아가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통한 안심입명은 세상살이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부모의 안정감이 자녀에게 안정된 기반을 제공하여 편안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모가 안정되어야 자녀의 확실한 의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와 보살피는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쌍방향의 감성 전달체계가 아이의 생명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이는 눈맞춤과 미소, 울음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때 무관심하여, 반응하지 않으면 아이는 비참한 상태가 되고 자주 아프게 됩니다.

이러한 교감이 지적 발달에도 도움을 주

니다. 안정감이 충족되었을 때 뇌는 사랑받는 즐거움 말고도 신경전달물질인 옥시토신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훗날 우정과 낭만적 친밀감 등이 동일한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밝고 사랑스런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고 강요하면서 거리를 두면 아이는 불안 공포감이 생기며 자라서도 부모와 친밀감이 없습니다. 또한 불안하고 정신없는 어머니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맞추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아울러 아이를 세심하게 보살피지 못할 때 집착하는 식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정보는 넘쳐나도 가장 힘든 것이 자식 기르는 일인 듯합니다. 참선이든 염불이든 수행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면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할지 지혜가 샘솟을 것입니다. 기도수행을 통한 안심입명(安心立命)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정에 태어난 새로운 붓대를 성장시키는 데 최선의 영약(靈藥)입니다. <끝>

원공당 정무대종사 열반 3주기 추모 범어집 『인생졸업장』에서

새봄에 생각하는 부처님의 자비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곱살 되던 해에 아버지 정반 왕을 따라 춘경제(春耕祭)를 관람하면서 쟁기질에 땅 속에서 기어나온 벌레를 새들이 쪼아 먹고 지친 소가 채찍을 맞고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못 생명의 생로병사에 대해 사색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뇌는 사문유관(四門遊觀)을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늙은 사람을 보고 세월은 모든 것을 덧없이 늙게 하고 초라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고, 병든 사람을 보고선 인간이란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근심에 잠겼으며, 장례식 행렬을 보고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슬퍼했습니다.

못 생명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가? 이러한 고뇌의 근원은 자비심이라 할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원래 자(慈)와 비(悲) 두 글자의 합성어인데, 자(慈)는 온갖 생명체를 사랑해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悲)는 온갖 생명체를 불쌍히 여겨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즉, 크게

사랑하고 크게 가엾게 여겨 괴로움을 없애 주는 마음입니다.

싯다르타 태자는 어릴 적부터 자비의 평화사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비는 삼라만상을 내 몸 같이 지극히 사랑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여 새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는 왕관을 쓰고 창검을 들어서 약한 자를 꺾어 정복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많은 중생을 구제할 길을 찾아 수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석가세존께서 자비무적의 평등평화 사상, 이타자리의 무아사상을 널리 알려 인류평화의 무한한 원동력을 제공하신 것도 이 유년기의 춘경제 때부터 마음속 깊이 싹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못 생명체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동심동조하는 모습을 동체대비(同體大悲)라 합니다. 『화엄경』에 보면 대비에 대해, ‘중생이 귀의할 곳이 없고, 사악한 길에 떨어지고, 선근이 없고, 생사에 잠자고, 욕(欲)에 묶여 있고, 오랜 병을 가지고 있고, 선법을 바라지 않고, 제불의 법을 잃음을 관찰하여 그때마다 대비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싯다르타 태자가 어린 시절 미물까지도 사랑하던 마음은 부처님의 일생에 그대로 이어져서 부처가 되신 후 하잘 것 없는 곤충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풀라고 제자들에게 자주 설법하셨습니다.

『사분율(四分律)』에 보면 여름에 스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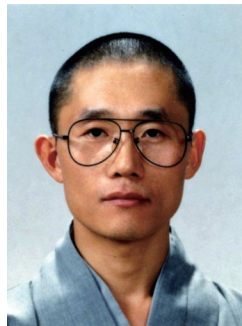
이 탁발과 만행을 다니면 길에 무수히 많은 벌레들을 밟아 죽이게 되므로 하얀거를 시행하고, 뜨거운 물을 길거나 바깥 땅에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시고, 물을 걸러 마시라고 한 것에서도 자비의 지극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중생들의 마음을 보듬어 같이 화평하게 어루만지는 부처님의 자비원력은 5백생 이전부터 닦아온 영원한 중생구제 보살도의 실천행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이 들었다고 하듯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 병의 처방을 백방으로 구하여 구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제도중생의 행을 직접 보이셔서 마침내는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의 큰 연꽃을 크게 피우게 하십니다.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어 덜어내려는 대자대비의 마음은 분명히 현재의 우리의 삶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이기 때문에 불타의 자비심을 본받도록 부지런히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혼란이 극한 말세의 중생계엔 석가모니께서 보여준 인성관과 자비관이야말로 이 세상의 혼탁을 맑히는데 절실히 요청되는 정신적 귀의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환한 마음이어야 부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비의 서광은 자성을 밝히는 묘법인 것을 우리는 세간살이 속이지만은 항상 명심해서 생활의 좌표로 삼아야겠습니다.

정도가 상실되면 불행이 이어진다

본원스님 / 명상수행원



미국인의 서부 정복의 역사는 프론티어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인디언의 고통스런 수난사다. 미국인이 미개지로 떠들었던 땅은 인디언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다. 미개지는 백인이 만들어낸 이름일 뿐이다. 인디언을 쫓아내고 부족 마을을 파괴하면서 미개척지로 둔갑시킨 것이다. 인디언의 생활 터전을 송두리째 뿌리 뽑은 것, 이것이 바로 프론티어의 본질이다.

독일 국민총생산량이 1880년대에는 영국의 1/3에 불과하지만 1900년에는 영국과 같은 수준이다가 15년이 지나고선 훨씬 앞서게 되면서, 군비증강에 한층 박차를 가하는 독일의 견제하지 못해, 힘의 균형을 맞추는 세력 유지의 추가 기울어지면서, 마침내 독일이 어부지리적으로 유럽 최강국이 되어 제1·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이렇게 본다면, 악의 화신! 돌연변이 히틀러가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인간존엄과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교류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하고 도모하기보다는, 남을 지배하여 자국의 배

나 채우려는 음흉하고 비정하며 추악하게 탐욕스런 국제사회가 조성한 환경이 결국 그를 키우고 성장시킨 셈이다.

제1차 세계대전(1913년)이 발발하자 입대(18세), 이등병으로 참전하여 생사를 넘나드는 50여 차례의 전투를 치르면서도 살아난 히틀러는 그후 자신 스스로 선택받은 특별한 인물로 착각하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광기에 취해 군중들을 선동하면서 정치적으로 급부상하게 되고 결국 나치당수가 된 그는 첫 번째 폴란드 침공(1939년 제2차 세계대전)에 앞서 〈나의 투쟁〉에 “바그너의 영감과 비스마르크의 철의 의지력으로 게르만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함은 곧

성스런 일이다”라고 쓰고 있다. 중세 이후, 다시 성전임을 주장한 전쟁의 참화는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면서 4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만약 유럽 열강들이 오랜 식민지배로 소모되는 힘을 거두어, 인접 국가 세력간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내실을 다져, 빈틈의 기회만 노리는 독일을 견제했다라면 악의 화신, 히틀러 출현도, 대참화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구 열강들은 자국의 작은 이익에 빠지며 히틀러가 출현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스스로 조성하여 환난을 자초하면서 크게 잃고 만 것이다.

식민지시대가 한창 치성하던 무렵, 제1·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이 전쟁이 전환점이 되어, 전후 20세기 중반을 고비로 국제기구·협약 등이 생겨나며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수백 년 뿌리내린 식민지화 열풍은 급격히 퇴조한다. 사상 최악의 참화를 빚은 데는 예사롭지 않은 인과관계적 단서가 엿보인다.

일찍이 이슬람제국이 <코란> 전파를 위해 성전의 깃발을 앞세운 칼로써 씨뿌리며 저지른 만행의 인(因, 직접 원인)과 연(緣, 간접 원인)이 바야흐로 익어, 오늘날 중동의 이슬람권은 일상이 무자비한 테러의 피로 물들 만큼 참혹한 사태에 익숙해진지 이미 오래다. 그리고 십자군의 성전, 중세를 암흑기로 만든 종교재판·화형, 탐험과 개척의 이

름으로 십자가로 무장하여 무력 강점지배하며, 온갖 악행을 씨뿌린 유럽권은 히틀러의 출현으로 온통 불바다 화염에 휩싸이는, 공포와 고통스러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비로소 그 기세가 한 풀 꺾이며 수그러든다. 필자의 이 같은 말과 글에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자업자득, “심은 대로 자라고, 뿌린 만큼 거둔다”는 인과법칙을 두고 더 이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정도로만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정도(正道) 상실은 곧 정직함(바른 생각, 바른 행실, 바른 말)의 가치를 잃은 것으로, 정도를 상실할 때 결국 모든 게 뒤틀리며 위기상황(불행)으로 이어짐은 인간사 순리다.

미국의 딜레마, 총기난사와 규제

1995년 급진 좌익 성향의 과한들이 오콜라 호마시티 건물을 폭파해 168명이 사망했고, 2006년 외톨박이 광신자 조승현이 저지른 최악의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로 33명이 사망했다. 앞서 2001년 이슬람 과격단체 세력에 의해 뉴욕 초고층 무역빌딩이 폭파되면서 2,752명이 사망하는 등 광인들마냥 마구 쏘아대는 총질과 폭발물로 피로 얼룩진 비극 중 대충 기억나는 근래의 사고만 해도 이처럼 빈번하다. 일단 총기난사에 골머리를 앓으며, 법적으로 총기 휴대 규제를 하자는 여론 한편에서는 범죄 방어 수단용으로 미리 구해 두자며 총기 사재기 현상의 진풍

경을 보이는 가운데, 잇따라 일어나는 총기 난사범을 잡기 위해 수사하던 검사가 연속 총기에 피살되는 악순환과 불안 속에 2013년 봄, 미 행정부는 총기 휴대 규제·금지 법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상원의회에서는 이를 부결(4월 18일)시켰고, 이에 오바마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개탄했다. 총으로 서부 개척시대를 연 자칭 세계경찰국가에서, 화근이 된 총을 두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미국 개척사는 인디언의 수난사

마치 이슬람권처럼 어느 한 곳 안전지대가 없을 만큼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총질하며 터지는 폭탄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통제불능의 참사 충격에 혼란스러운 미국은 총기와 관련해 얼마나 깊은 악연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다.

미국이 앓고 있는 병통은 복잡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보다 명료하다. 무엇 때문에 총기난사와 테러로 끝 모를 아픔의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차원에서 먼저 지난 과거사를 분석·구명을 함으로써 접근·인식할 때 직면한 난제를 풀 실마리 가닥이라도 잡을 것이다.

콜럼버스 이전, 15세기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1,200만명 이상의 인디언이 600개 넘는 부족 단위로 형성하여 뿌리내리며 살고 있었다.

‘먼저 발견한 자가 차지한다’는 정복욕의 논리, ‘발견의 법칙’ 적용에 따라 신대륙에 펼쳐진 광활한 북미 대륙의 주권을 두고 영국 왕실로부터 상징적 권리를 부여받고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북미 최초의 성문헌법은 1620년 한 무리의 영국인 이주민들이 우여곡절 끝에 버지니아 케이프가드 해안에 도착하여 배 이름을 딴 ‘미국 최초의 건국문서’로 불리는 메이플라워서약의 서두에는 “신의 영광, 기독교 신앙의 증진, 그리고 우리 국왕과 …… 식민지를 세우고자 항해를 했다.”라고 적혀있다. 역사학자 터너에 의하면 서부로 전진하는 물결 속에서 최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프론티어다. 프론티어는 야만과 문명의 접촉 지점이다.

미국인의 서부 정복의 역사는 프론티어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인디언의 고통스런 수난사다. 미국인이 미개지로 떠들었던 땅은 인디언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였다. 미개지는 백인이 만들어낸 이름일 뿐이다. 인디언을 쫓아내고 부족 마을을 파괴하면서 미개척지로 둔갑시킨 것이다. 인디언의 생활 터전을 송두리째 뿌리 뽑은 것, 이것이 바로 프론티어의 본질이다.

1838년 10월 1일, 체로키족은 눈물의 행로를 나선다. ‘눈물의 행로’는 몇해 앞서 강제 이주에 내몰린 족토족이 행군 중에 질병과 굶주림으로 수없이 죽어간 데서 유래된 말이다. 그 가시밭길을 이제는 체로키족

이 재현하게 되었다. 강제 이주 대열에 동행했던 미국 기병대 소속 한 병사는 참혹했던 현장을 이렇게 증언했다.

1838년, 체로키 인디언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고향을 떠나 이주해야 했다. 나는 그곳에서 미국 전쟁사에서 가장 잔인한 명령이 시행되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무기력한 체로키 인디언들이 체포되어 그들의 고향에서 철책이 둘러싸인 지역으로 강제로 끌려가는 광경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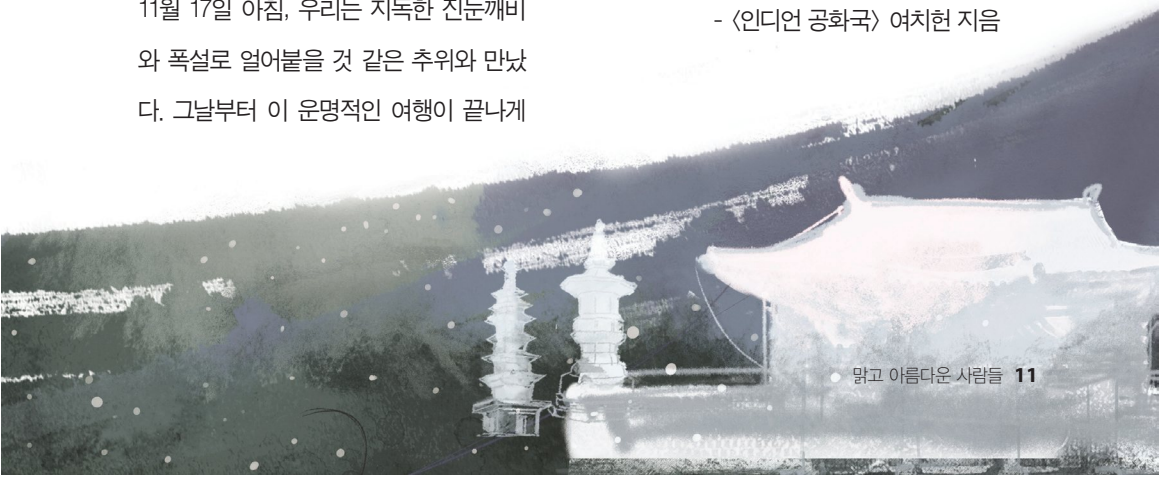
그리고 10월의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려 냉기가 도는 아침, 나는 그들이 가축이나 양처럼 646대의 마차에 실려 서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다. 많은 아이들이 까치발을 하고 일어나 조그만 손을 흔들며 고향을 향해 안녕을 고했다. 그들은 그곳을 영원히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 대부분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담요조차 챙길 틈도 없이 맨발로 고향에서 쫓겨났다.

11월 17일 아침, 우리는 지독한 진눈깨비와 폭설로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와 만났다. 그날부터 이 운명적인 여행이 끝나게

되는 1839년 3월 26일까지 체로키족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추방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다. 그들은 마차와 맨땅에서 물도 없이 잠을 자야 했다. 내가 알기로 하룻밤에만 무려 스물두 명이 폐렴으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유기되어 추위로 죽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수십 명의 인디언이 행렬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800마일(약 1,300km)을 걷고 또 걸었다. 이주가 마무리되었을 때는 인디언 중 1/4가량 되는 4,000여명이 추위와 질병, 기근으로 세상을 떠났다.

살인은 살인이다. 그리고 누군가 대담해야만 한다. 누군가는 1838년 여름, 인디언 영토에 흘렀던 피의 강물에 대해 설명해야만 한다. 또 체로키족이 강제로 추방당한 길을 따라 서있는 말 없는 무덤들에 대해 설명해야만 한다.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화물처럼 싣고 얼어붙은 땅 위로 무겁게 움직이던 마차 646대의 환영이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 〈인디언 공화국〉 여치현 지음





넓고도 깊은 ‘깨달음의 보고’

불교의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불교의 경전은, 1차 결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다시 암송하는 것이었다. 즉 현재처럼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암송하여 부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그 후 3차 결집 때 비로소 문자화되면서 책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경전은 시대적과 사상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는 크게 경(經), 율(律), 논(論) 세 가지로 분류한다. 사상적으로는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승경전에는 아함경, 열반경, 범망경, 법구경, 유교경 등이 있고 대승경전에는 대품반야경,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무량의경, 유마경, 화엄경, 무량수경, 아미타경, 능가경 등이 있다.

경전의 바다는 넓고도 깊다. 너무나도 많은 경전이 있어서 수행자가 그것을 모두 읽고 익히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수행자는 먼저 경전 가운데 기둥이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마련이다. 이를 ‘중심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중심경전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적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만하게 두루 익히기 위해서는 이런 방편적 개념을 어느 정도 따르는 일도 필요하다. 더구나 공부를 처음 하는 이에게 이 방법은 매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엄의 5교 10종관과 천태의 5시 8교관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경전의 실제적인 편찬 순서와는 맞지 않고 각자 자기 종파의 경전을 중심으로 체계화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다시금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모든 경전은 첫머리에 ‘여시아문(如是我聞) 일시(一時) 불(佛) 재사위국(在舍衛國) 여대비구(與大比丘)’로 시작한다. 이는 경전의 여섯 가지 필수적인 요건으로 육성취(六成就)라고 한다. ‘여시(如是)’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신성취(信成就)이고 ‘아문(我聞)’은 ‘내가 직접 들었다’는 문성취(聞成就)를 의미한다. ‘일시(一時)’는 설법의 때를 명시하는 시성취(時成就)이며, ‘불(佛)’은 설법을 한 것이 부처님이었다는 주성취(主成就)

를 의미한다. ‘재사위국(在舍衛國)’은 설법한 장소를 밝히는 처성취(處成就)이며 ‘여대비구(與大比丘)’는 어떤 사람이 들었는가를 밝히는 중성취(衆成就)이다.

아함경(阿含經)

구전되어 오던 부처님의 교설을 기억에 의해 정리하여 집성한 것을 아가마(Agama)라고 총칭하고 있다. 아함은 아가마의 음역으로 ‘전하여진 가르침’이란 뜻이다. 따라서 ‘함경’에 일관하여 설해지고 있는 것은 근본불교의 중심사상인 사제(四諦), 팔정도(八正道), 십이인연(十二因緣) 등의 교리로서, 이것은 불설(佛說)에 가장 가까운 것이면서도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교훈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아함경은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부처님의 인간미에 가깝고 사상적인 변화도 거의 없으며, 이설의 대립이나 대·소승의 구별도 보이지 않는 불교의 근간이 되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아함경’은 불교의 근본사상인 연기사상(緣起思想), 근본정신인 자비정신(慈悲精神), 근본주의인 깨달음(覺) 그리고 대승의 근본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보살사상 등이 총체적으로 설해지고 있어 부처님이 설한 바 본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경이라 하겠다.

현재 ‘아함’으로 불리는 문헌으로 한역 대장경 안에 장아함(22권), 중아함(60권), 잡

아함(50권), 증일아함(51권) 등 네 가지가 전한다. 장아함은 주로 장편의 경전 30경이 수록되어 있으며, 중아함은 중편의 경전 222경, 잡아함은 단편의 경전 1,362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증일아함은 1법에서 10법까지 법수의 순차에 따라 분류, 편찬한 472경이 실려 있다. 한역 4아함에 해당하는 문헌으로 팔리어 5부(部, Nikaya)가 있는데, 장부, 중부, 상응부, 증지부, 소부가 그것이다. 이 중 소부에는 ‘법구경’, ‘경집’, ‘본생담’ 등 중요한 경전 15편이 포함되어 있어 아함과 구별되고 있다.

이렇듯 ‘아함경’은 단지 하나의 경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교설 전체를 나타내는 총체적인 표현으로서, 엄밀히 말해 ‘아함’ 또는 ‘아함부’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옳은 표현이라고 하겠다.

본생경(本生經)

‘본생경’은 부처님이 전생에 어떠한 선행과 공덕을 쌓았기에 이승에서 부처님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인과(因果)의 이야기 547가지를 모은 것이다. 다시 말해 부처님이 이승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인 과거세에 수행자로 있을 때를 ‘보살(菩薩)’ 또는 ‘대사(大士)’라고 하는데, 이 경은 바로 이러한 보살 또는 대사의 이야기인 것이다. 일찍이 유럽에 전해져 이솝우화에 편입될 정도로 설화 문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보고(寶庫)로

평가받고 있다. 이 경의 이야기는 3부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먼저 부처님이 자신의 전생이야기를 하게 된 유래를 설하는 부분, 둘째 현세의 일이 생기게 된 전생이야기를 설하는 부분, 셋째 현세의 등장인물과 전생의 그것과를 결합하여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부분 등이다.

여기에서 보살은 과거의 긴 세월 동안 윤회전생을 거듭하면서 인간뿐 아니라 귀신이나 동물에 이르기까지 온갖 생(生)의 형태를 거치며 교화의 행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은 곧 부처님이 자신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재미있게 비유, 설명하여 인과의 교훈을 주고 있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 경의 내용 속에는 우리 민담(民譚)에 수용된 설화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경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호응을 얻었으며, 불교의 수행승이나 포교사, 법사들도 대중 교화에 이 경의 이야기를 많이 이용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본생경’은 과거뿐만 아니라, 결과만을 중시하고 물질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부처님의 수행담인 것이다. 이 경이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 여러 나라에 유포된 것은 2~3세기로부터 5~6세기에 이르기까지로 보며, 우리나라에서도 불탑이나 석굴 등의 미술 조각을 중심으로 시, 소설, 전기, 속담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다. 팔리어 5부 중 소부에 포함
되어 있으며, 원어는 자타카(Jataka)이다.

육방예경(六方禮經)

‘육방예경’은 초기불교에 있어서의 재가자
가 지켜야 할 실천 규범을 설한 경전이다.
다시 말해 세속적인 인간관계에서 예의범절
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경전으로 일상
생활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자의 아들인
시가라월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동서남북
과 위아래의 여섯 방향을 향해 예배하는 모
습을 보신 부처님께서 각각의 방향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 즉 동쪽은 부모이
고 남쪽은 스승, 서쪽은 아내와 자식, 북쪽
은 친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쪽은 사문이나
바라문이고 아래쪽은 하인이나 고용인
을 배정하고 서로의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서 예를 지키라는 것이다. 특히 부부 관계에
서 아내의 위치를 중시하고, 주종 관계에서
는 고용인의 입장을 이해할 것을 제시하여
자만심과 권위심을 버리라고 권유한다. 또
한 진실한 친구 선택의 중요성과 근검절약
의 교훈을 설하고 있다.

나아가 재가자의 필수덕목인 살생하지 말
것,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말 것, 부정한 남
녀관계는 맺지 말 것, 거짓말을 하지 말 것
등의 4계(戒)를 지키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
경은 또 근본적으로 삼독심(三毒心) 즉 욕

심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과
공포심 등을 제거하라고 설한다.

이와 같이 이 경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의 대인관계와 각각의 윤리성 그리고 자신
의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방의 예의가 희미해지고 사
치 풍조가 극치에 달한 오늘날에 우리 재가
자들이 경청하고 실천해야 할 금과옥조가
담긴 소중한 경전이 바로 ‘육방예경’이라
하겠다. 이 경이 불교사에서 큰 의의를 갖
는 것은 원시불교 시대에 이만큼 정확하게
논리적인 체계로 재가 신도들의 생활 윤리
를 설하고 있는 경전이 없다는 사실이다.





신륵사 조사전

토속신과 어우러진 한국불교의 전각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은 고구려 소수림왕이 375년에 지은 초문사(肖門寺)라고 한다. 또 같은 시기에 아도 화상을 위해 지은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시작으로 수많은 사찰이 우리나라 곳곳에 지어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월만큼 사찰의 모습도 변화였지만 보통 우리나라 사찰은 일주문(一柱門), 천왕문(天王門), 불이문(不二門), 전각(殿閣), 선원(禪院), 강원(講院), 율원(律院), 요사채, 후원(後院), 해우소(解憂所) 등으로 되어 있다.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은 사찰 입구에 있는 문이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모셔진 곳들은 전(殿)이라 하고, 산신 등을 모신 건물은 각(閣)이라 한다.



청량사 산신각

조사전(祖師殿)

조사전은 역대 조사나 그 종파의 조사스님, 사찰의 창건주, 역대 주지스님 등 해당 사찰과 관련하여 후세에 존경받는 스님들의 영정이나 위패를 모신 전각이다. 사찰에 따라서는 조당, 조사당, 국사전(國師殿) 등으로도 부른다. 특히 통도사의 영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영정을 보존하고 있으며, 송광사 국사전과 해인사 조사전, 신륵사 조사당 등이 대표적이고 불영사의 의상전에는 의상 조사의 영정과 더불어 원효대사, 종봉대선사, 청허대선사의 영정이 안치되어 있다.

삼성각(三聖閣)

삼성각은 산신, 독성, 칠성여래(치성광여래)를 함께 모시는 전각을 말한다. 삼성 신앙

은 불교가 한국 사회에 토착화하면서 고유 토속신앙이 불교와 합쳐져 생긴 신앙 형태이다. 이 전각은 보통 사찰 뒤쪽에 자리하며, 각 신앙의 존상과 탕화를 모신다.

삼성을 함께 모실 때는 정면 3칸, 측면 1칸 건물을 짓고, 따로 모실 때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건물을 짓는다. 삼성을 따로 모실 경우에는 산신각, 독성각, 칠성각 등의 전각 명칭을 각각 붙인다. 특히하게, 양산통도사 삼성각은 고려 말의 3대 성승(聖僧)인 지공(指空), 나옹(懶翁), 무학(無學)스님들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

산신각(山神閣)

산신(山神)은 한국의 토속신 산신령에 해당하는 호법신신으로 산신이라는 인격신과 화

신인 호랑이로 나타난다. 인격신으로서의 산신은 나이 든 도사의 모습이고, 호랑이는 대부분 산에 위치한 사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신각은 칠성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발달한 토속신인 산신과 호랑이를 모신 곳으로 사찰이 산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종의 외호신중으로 산신령을 모시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신앙에서는 산에 사는 영물로 호랑이를 산군으로 모시기 때문에 산신은 언제나 호랑이를 거느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칠성각(七星閣)

‘칠성’이란 수명장수신(壽命長壽神)으로 일컬어지는 북두칠성을 일컫는 것으로, 사찰

에 칠성을 모시게 된 것은 중국의 도교사상이 불교와 융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칠성을 부처님들로 화한 경우가 보통인데,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를 주존불로 모시고 있다. 손에 금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좌우에 협시로 배치된다. 특히 조선시대 가장 성행한 전각으로 운문사, 옥천사, 선암사 칠성각 등 수많은 예가 남아 있다.

독성각(獨成閣)

독성은 천태산(天泰山)에서 홀로 선정을 닦아 독성(獨聖)·독수성(獨修聖)이라 불린 나반존자(那畔尊者)를 일컫는다.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수독성탱(修獨聖幀)·나반존자도(那畔尊者圖)라는 독성탱화(獨聖幀畵)를 모

해인사 독성각



신다. 그림은 천태산과 소나무, 구름 등을 배경으로 희고 긴 눈썹을 드리운 비구가 오른손에는 석장(錫杖), 왼손에는 염주 또는 불로초를 들고 반석 위에 정좌한 모습이다. 때로는 독성 외에 차를 달이는 동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동자와 문신(文臣)이 양쪽 협시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 나만존자가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16나한 중의 한 분인 ‘빈도라발라사’가 아난가 여겨지기도 한다. 빈도라발라사는 코삼비국 재상의 아들로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여 구족계를 받았다고 한다.

장경각(藏經閣)

장경각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경(佛經)이나 목판을 봉안한 전각으로 사찰에 따라 대장

전(大藏殿) 혹은 판전(板殿), 법보전(法寶殿) 등으로 불리운다. 대표적인 곳으로 합천 해인사의 장경각과 예천 용문사 대장전, 선암사 장경각, 용주사 경각 등 많은 예가 있다. 특히 용문사 대장전에는 경을 넣어 돌리면서 열람하거나 예배하는 윤장대라는 것이 있어 더욱 유명하다.

포살당(布薩堂)

스님들은 보름마다 모여 참회하는 포살법회를 갖는데, 이때 모이는 곳을 포살당이라 하며, 이때 계를 설하기도 함으로 ‘설계당(說戒堂)’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외에도 사찰의 건물에는 스님들이 참선하는 선방(禪房)과 스님들이 거주하는 승방(僧房) 등이 있다.

선암사 장경각



‘효의 근본사찰’ 경기도 화성 화산 용주사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에 있는 아담한 화산 자락에 자리한 용주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이다. 용주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용건릉에서 1.7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용건릉(隆健陵)은 제22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와 현경왕후를 모신 용릉, 정조와 효의왕후를 모신 건릉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본래 용주사는 신라 문성왕 16년(854년)에 창건된 갈양사로서 청정하고 이름 높은 도량이었으나 병자호란 때 소실된 후 폐사되었다가 조선시대 제22대 임금인 정조(正祖)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화산으로 옮기면서 절을 다시 일으켜 원찰로 삼았다. 용주사는 일반 사찰의 가람 배치를 따르고 있지만, 유교 건축물과 혼재되어 있어 더욱 특이한 사찰로, 정조의 효심을 느낄 수 있는 조선 후기의 독특한 사찰이다.





호성전과 부모은중경석탑

용주사(龍珠寺)는 854년(문성왕 16)에 창건하여 염거화상이 창건한 갈양사(葛陽寺)가 있었던 곳이다. 갈양사는 고려 광종 21년(970)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륙재를 개설하는 등 청정하고 이름 높은 도량이다. 용주사는 1636년에 병자호란으로 소실되어 폐사되었던 갈양사의 옛터에, 1790년(정조 14) 정조대왕이 인근의 현릉원을 조성할 때 비명에 숨진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중창한 절이다. 낙성식 전날 정조가 꿈에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고 해서 용주사라 했다. 용주사는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불심으로 승화되어 창건된 사찰로, 오늘날까지 용주사가 ‘효의 근본사찰’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정조의 정신이 사찰 곳곳에 스며있기 때문일 것이다.

용주사는 1790년 창건과 동시에 전국 5규정소(五糾正所 : 승려의 생활을 감독하는 곳)의 하나가 되어 승풍(僧風)을 규정하였고, 팔로도승원(八路都僧院)을 두어 전국의 사

찰을 통제했다. 그후 1900년에 용해 스님이 중수하였고, 1911년에는 30본산의 하나가 되었다. 1931년에 강대련(姜大蓮)이 중수하였고, 1955년 사찰 정화 뒤에 조계종 제2교구 본사가 되었으며 같은 해에 불교 전문강원을 개설되었으며, 1965년 대웅보전을 중수하는 등 중수와 개축을 거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81년에는 3층의 부모은중경탑을 세웠다.

용주사에는 일반 사찰에서 보기 드문, 궁중의 건축 양식이 많이 있다. 능(陵)이나 묘(廟), 궁전(宮殿) 등의 정문 앞에 세우는 홍살문이 있다. 홍살문을 지나면 나오는 솟을삼문 삼문각(三門閣)도 불교와는 거리가 먼 건축물이다.

일주문을 대신하는 삼문각은, 그 양쪽에 고관들의 행랑채처럼 조선식 건물이 지어져 있다. 삼문각 앞 자연석에는 ‘도차문래(到此門來) 막존지해(莫存知解)’가 음각돼 있다. ‘이 문에 이르러선 마음을 허공과 같이 비



우리' 는 뜻이다.

세 개의 문 가운데 사람들은 양쪽의 문만을 사용할 수 있어 들어갈 때에는 오른쪽 문을 이용하고 나올 때에는 왼쪽 문으로 나와야 한다. 가운데 문은 신만 드나들 수 있다고 한다. 용주사에 삼문이 있는 것은 이 절이 신주를 모시는 사당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려 준다. 삼문을 지나면 석탑이 나오고 건너편에는 천보루(天保樓)가 있다. 하늘이 지켜준다는 의미로 관아나 궁중의 건물 양식이다.

1790년에 세운 대웅보전(大雄寶殿)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多包系) 팔작지붕의 건물로, 18세기 불전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능침사찰의 주불전으로 권위와 격식, 시대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평이다. 편액은 정조의 친필이다. 지난해 8월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제1942호로 지정되었다.

대웅전에 모셔진 '목조삼세불좌상(木造三世佛坐像)'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14호이다. 후불탱화는 김홍도의 지휘로 그려진 걸작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웅전의 외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모습과, 열반에 드신 후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을 볼 수 있다.

문화재로는 국보 제120호인 용주사 동종과 보물 제1754호인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등이 있다. 동종은 고려의 걸작이다. '비천상과 결가부좌한 삼존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의 종으로는 최초의 양식이라고 한다. 동종은 높이 1.44m, 입지름 0.87m, 무게 1.5톤의 거대한 규모로 '상원사 동종',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에밀레종'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①홍살문 ②목조삼세불좌상



전강스님 사리탑

에서 손꼽히는 걸작으로 평가된다. 부모은 중경판은 목판 42판, 동철판 7판, 석판 24판의 세 종류가 있다. 모두 73판으로 1796~1799년 사이에 조성되었다. 이 경판들은 정조의 명으로 조성되어 주자소에 내입(內入)되었다가 화성 용주사에 보내졌다고 한다.

담장 너머의 중앙선원을 배경으로 경내 가장 안쪽에는 전강스님(1898~1975)의 사리탑이 있다. 현대 한국의 대표적 고승이며 용주사의 정신적 지주였던 전강스님은 ‘쥐가 고양이밥을 먹다’라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대웅전 옆 호성전(護聖殿)은 사도세자와 현경왕후(혜경궁 홍씨), 정조대왕과 효의왕후 김씨(정조의 왕비)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호성전 앞에는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석탑이 있다. 정조는 용주사를 중창할 때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고 추효(追孝)하기 위해, 부모은중경(父

母恩重經)을 목판에 새겨 보존하도록 명을 내리고 당대 제일의 화가 김홍도에게 맡겨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였다고 한다.

용주사는 효행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효행박물관도 있다. 이는 정조의 효심에서 중창된 사찰로서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한편 효사상을 중요시 여긴 우리 조상들이 남긴 유산을 통해 현재를 사는 지혜를 얻고 진정한 삶의 본보기를 찾고자 함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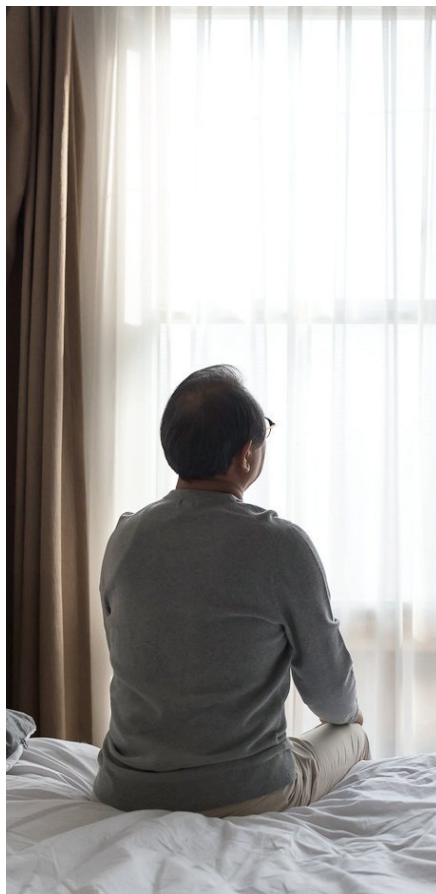


찾아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동탄분기점에서 수도권 제2순 환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 북오산나들목에서 내린다. 세마교차로에서 수원, 화정 방면으로 우회전 후 3km쯤 달려 우회전 하면 용주사가 나온다.

뒤늦게 찾아온 마음의 감기, 노년기 우울증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 (Depressive Disorder)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보편적인 증상이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의 정의는 ‘의욕저하와 우울한 마음을 주 증상으로 하며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적인 생활과 신체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우울증의 대표적 증상으로는 우울한 마음이 지속되고 의욕 저하, 무기력이 나타나며 수면장애, 식욕 저하와 소화불량, 급격한 체중 변화, 집중력 저하, 부정적인 생각과 자살 충동 등이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한국 성인 우울 증상 경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8명 중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우울증을 앓는 비율이 고령이 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17.9%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15.1%, 50대가 15%, 40대가 12.9% 순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노인 우울증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우울하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노년기 우울증의 심각성에 대해 약간의 관심과 치료를 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적극적인 치료를 강조하고 있으며, 노년기 우울증은 정신병이 아니라 노화로 인한 건강저하가 함께 좌우하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우울증이 노년기에 겪게 되는 가장 흔한 정신적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는 노년기가 되면 더 많은 상실감을 경험할 뿐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들의 자살문제 역시 이러한 우울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 우울증의 원인

노인 우울증은 사회 심리적 원인과 생물학적 원인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회 심리적 원인으로는 사별 등으로 인한 가까운 사람의 상실이나 고립, 사회적 지지체계의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낮은 자존감과 경제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소외되기 쉽고 더 많은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다고 한다.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원인과 신경전달 물질 및 내분비계의 변화, 각종 신체적 질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밖에도 노년기에는 암이나 중풍, 파킨슨씨병, 갑상선질환, 고관절 골절 등의 신체적 질환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고혈압제나 진통제, 항암제, 혈당강하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반 우울증과 차이점

그렇다면 여타 우울증과 노인 우울증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있을까?

첫째, 일반 성인의 경우 우울한 기분, 흥미 감소 등 우울증의 전형적 증상이 전면에 드러나므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진단이 가능하다. 반면 노인 우울증은 젊은 성인에 비해 슬픔을 덜 호소하고, 건강염려증적인 생각이 흔해서 건강과 신체적 증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을 하거나 불안 증상과 불면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다른 신체 질환이나 단순한 불면증 또는 불안 증상으로 오인해 부적절하게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둘째, 노년기 우울증은 신체적인 호소가 많고 우울한 양상을 더 자주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지기능의 감퇴, 무력감, 유쾌한 자극에 대한 반응의 상실, 아침에 악화되는 우울감, 새벽에 잠을 깨어 다시



노인 우울증의 치료방법

울증에 주된 치료법인
약물치료, 2) 심리사회
적 치료, 3) 환자가 문제
를 조절하는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문제 해결
치료, 4) 우울증을 조장했던 대인 관계간
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대인관계
치료, 5) 자신을 우울증에 빠지게 했던 믿
임과 비관적인 사고를 확인하고 변화시키
도록 도와주는 인지-행동치료, 6) 노화와
관련된 사망률을 낮출 수 있고 체력감소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며, 기능적인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요법, 7) 그밖에 손을 잡거나 어깨를
짚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큰 효과
를 볼 수 있다.

잠들지 못한다거나, 현저한 정신운동성 지
연 또는 초조,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죄책감
등이다. 그 외에도 노년기 우울증에서 건강
염려가 많고 정신병적 증상들도 동반될 수
있는데 환각은 비교적 적은 반면 망상이 흔
하고 망상의 내용은 죄책감, 허무주의, 심기
망상(자신이 중대한 병에 걸렸다고 하는 망
상), 죄책 망상(관계자에 대해 큰 죄를 저질
렀다고 하는 망상), 빈곤 망상(자신의 소재
나 지위 등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망상)
이 흔하다.

이러한 우울증 치료 방법으로는 1) 노인 우

울증은 방치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
어갈 경우 만성 우울증으로 갈 확률이 높
다. 그렇게 된다면 자살이나 자해 등의 위
험요인이 발생하면서 결국 신체적, 사회적
으로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예방과 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울증은 누구나 평생에 한번쯤은 걸릴
수 있으며 10%의 전 세계 정신장애 인구
중 약 1/5 수준인 1억 명이 해당된다고 한
다. 우울증은 그 종류나 증상에 있어 일상
생활 속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특히
노인들은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

하여 다른 연령에 비하여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 우울증의 증상은 무관심이나 무기력, 수면장애와 같은 보편적인 증상을 나타내므로 오히려 쉽게 지나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나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우울증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며, 노인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차원의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운동과 접촉을 통해서도 노인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측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인들에게 관심이 없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어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우울증 예방 및 극복방법

- 1 집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햇볕을 많이 쬐다. 따뜻한 햇볕은 우울한 기분을 날려주는 자연 치유제이다.
- 2 물은 200ml 컵으로 하루 8잔 이상 마신다. 적당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며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 3 무리해서 일하지 않는다. 하루 계획은 느슨하게 짜며, 일이 부담되면 내일로 미루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다.
- 4 담배를 끊는다. 담배를 오랫동안 피운 사람은 전혀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두 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5 취미생활을 한다. 취미생활은 삶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 넣는다. 능동적으로 직접 해보는 취미가 더 좋다.
- 6 적당한 영양을 섭취한다. '세로토닌' 생성에 필수적인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한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바나나, 호두, 콩류 등이 있다.
- 7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한다. '웃음은 명약'이라는 말이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웃으면 마음도 행복해진다.
- 8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가족이나 친구 등 대인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블루터치 핫라인 1577-0199' 로 전화를 걸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왕사 소식

제35회 백고좌법회 입재



법왕사에서 지난 3월 5일 제35회 백고좌법회를 입재하였습니다. 이번 법회는 6월 12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되는데 입재 법회에는 조계종 법계위원이신 무관 스님께서 법문하셨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백고좌법회는 법왕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회로 지난 20여년 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해왔으며 때로는 연 2회를 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백고좌법회에도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우담바라합창단 대구불교연합 합창제 우수상



법왕사 합창단인 우담바라합창단은 지난 3월 7일 오후 6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린 BBS 대구불교연합 합창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담바라합창단은 정무시 선생이 지휘하며 법왕사의 각종 법회시에 음성공양을 하는 단체입니다.

팔상성도 자비도량참법 기도 봉행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팔상성도 자비도량참법 8일기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은 현세에서 지은 과보로 구령이가 된 황후 치씨가 양무제를 찾아와 자신을 구제해 주기를 간청하자, 치씨를 제도해 극락왕생에 이르게 하려고 양무제가 간행했다고 전해지는 경전입니다. 이 책은 여러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참회의 방법과 내용을 뽑아 일정한 체계로 엮은 참회문 총서입니다. 이 참법은 법문대로 수행하면 영험을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멸죄생복(滅罪生福)하며, 망령을 제도(濟度)하면 고륜(苦輪)에서 해탈할 수 있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면 원수를 멀리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수행참법(修行懺法)입니다. 주지 실상 스님은 소참법문에서 “자비심을 내어서 참회하는 공덕으로 모든 생의 인연들의 죄업이 풀리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월 14일 쌍계사로 백고좌법회 이동순례법회



법왕사에서 오는 4월 14일 경남 하동 쌍계사와 전남 구례 화엄사, 구례 사성암으로 백고좌법회 이동순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 세 사찰은 삼진강을 끼고 있는 명찰로 십리벚꽃으로 이름난 명승지이기도 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당일 동참비는 4만원이며 당일 오전 8시 법왕사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3월 16일 현웅스님 출판기념 사인회



서울 육조사 현웅스님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3월 16일 법왕사 제35회 백고좌법회시에 열렸습니다. 현웅스님은 '번뇌를 끊는 이야기'란 불교 수필집을 발간하였는데 그 출판기념회를 법왕사 백고좌법회 법사로 오셔서 최초로 개최한 것입니다. 이날 기념회에는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서적을 구입하고 스님의 친필 사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술년 새해 인등 접수 중



법왕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불을 밝혀온 인등을 새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산신인등, 본당인등, 4층 대적광전 인등, 3층 영가전 인등을 밝히고 싶은 분은 중무소로 접수하시고 현재 등록하고 계신 불자들은 올해 무술년에도 계속 밝힐지 여부를 중무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접수하는 회비는 1인 1등 월 3천원입니다.

3층 만불전에 평생위패단 새로이 조성



법왕사에서는 3층 만불전에 새로이 평생위패단을 조성합니다. 지장보살상을 모시고 그 좌우로 평생위패단을 조성하는데 조상영가의 위패를 모실 분은 신청바라며 주위에도 많이 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베트남 불자법회 모임 가져



지난 3월 5일 베트남 불자 30여명이 법왕사 본당에서 법회를 갖고 주지스님과 환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베트남 불자들을 매월 법왕사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3월 3일 정월대보름 산신대재 봉행

법왕사는 지난 3월 3일 정월 대보름을 지나서 산신각에서 산신대재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대재에는 산신각에 인등을 밝힌 불자 1백여명이 동참하였습니다.

법왕사 소식

6월 12일 혜능스님 백고좌법회 수계법회



오는 6월 12일 제35회 백고좌법회 회향일에는 전 해인사 원장 혜능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보살계 및 불명수지법회를 봉

행합니다. 수계법회는 100일 간의 백고좌법회를 마무리하는 회향법회로 수계와 불명수지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현재 접수 중입니다.

무술년 팔상성도 특별법회 회향

법왕사에서 지난 3월 24일(음 2월 8일)부터 3월 31일(음 2월 15일)까지 8일 동안 부처님의 일대기를 여덟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팔상성도에 따른 특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법회는 제35회 백고좌법회 중간에 들어 있어 8분의 스님으로부터 부처님의 출가에서 열반까지 생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되새겨 더 깊고 넓은 신행의 세계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자 원고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투고와 사보를 읽은 후의 소감이나 각종 제언, 제안 등 후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신행생활의 체험담이나 수필, 기행문, 시 등 문학작품은 물론 사보를 보시고 난 후의 느낌이나 제언 등 무엇이든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사보에 게재하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원고 보내실 곳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 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편집실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에서는 불자 여러분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구독 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구독료는 사보 제작은 물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활용되는 등 큰 공덕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왕사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 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편집실

새로 오신 법우님

김난희 김동영 이종희 박경호 장재화 김치경
추수호 이홍식

사보 도움 주신 분

서각반 100부 문성왕 200부 관음회 200부
신장회 300부 박경란 100부 권영숙 500부
강선옥 100부 주상준 500부 최민우 500부
권혜경 200부 권영아 200부 자비회 500부
손순재 300부 김정숙 200부 김현주 200부
노귀주 100부 권오국 200부 이재학 50부
강춘희 100부 이세정 100부 김정석 50부
신임선 100부 이위영 100부 정용진 100부
손금자 100부 정경례 100부 김정남 100부
고은희 100부 김영자 200부 이명숙 1,000부
전채술 1,000부 민가주 1,000부 전형진 1,000부
박성호 1,000부 오광진 1,000부 김정국 1,000부
정우진 1,000부 백법성행 100부 백대행심 100부
윤건불심 200부 조진불심 300부 홍공덕심 300부
지장화원 500부 KT진여회 200부 이철우

베트남 불자 1,000부 해오름요양원 200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공양 올리신 분

◎ 공양미 올리신 분

박진오 김종구 김순이 황세운 정명숙
김옥순 김정석 이재현 이승재 윤다경
이세정 김현정 우연희 김팔남 김국홍
김근태 김기수 강점선 장사덕 성 윤
제갈죽 김수종 권영호

◎ 과일공양 올리신 분

양지영 우연희

◎ 대중공양 올리신 분

신장회 관음회 지장회 합창단 산신회
자비회 하경용(바섯) 김순태(바섯)

◎ 떡공양 올리신 분

조철제 심규암 김상희 이해경 배해동
이정자 이영호 김근태 양문갑 박은정

사공순옥 윤건불심방생 정월대보름

◎ 저금통 회향하신 분

정경례 김민섭

◎ 꽃공양 올리신 분

권중훈 권상태 이화꽃집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불사 올리신 분

◎ CMS 불사하신 분(~3/20)

강유주 1만원 나형진 2만원 장명희 5천원
강창현 2만원 류윤희 1.5만원 장미아 4천원
강춘희 2만원 서필희 1만원 전성복 1만원
김관용 5천원 성점순 1만원 전재필 5천원
김달준 14만원 손동림 5천원 전태일 5만원
김달준 2만원 손향숙 2만원 정순희 2만원
김명선 2.5만원 송순분 2만원 정연이 8천원
김명숙 1.5만원 송윤선 7만원 정재순 3만원
김성미 5천원 신인숙 5천원 조희선 2만원
김성자 1만원 신정옥 4.5만원 최진식 5천원
김수라 3만원 심규암 1.8만원 한천숙 1만원
김연자 1만원 심영선 1.5만원 홍경숙 1만원
김옥자 1만원 오재대 1만원 황국희 2.5만원
김정옥 1만원 오창형 1만원 황금식 7천원
김제순 1만원 이숙희 2만원 황덕선 5천원
김현숙 8천원 이호진 1만원

◎ 일년등 올리신 분(초파일 가족등)

248 김명숙 249 윤춘옥 250 여축동 251 이이근
252 정갑순 253 윤석수 254 박재술 255 유기상
256 김칠환 257 김찬호 258 김해순 259 이상욱
260 조분기 261 정태진 262 박태철 263 정현표
264 추수호 265 권영옥 266 오광일 267 손성호
268 정낙진 269 박봉선 270 박봉순 271 권순표
272 장마리 273 배석록 274 이준식 275 이재원
276 조진환 277 이해길 278 이종량 279 이홍근
280 정하삼 281 조만호 282 조재호

◎ 산신인등 올리신 분

168 양봉률 267 이상길 299 공영한 300 이승민
301 백옥길 302 김차경 303 이종희

◎ 본당인등 올린신 분

340 배현수 390 박경호 391 장재화 395 서연우
396 추윤우 397 추수연

◎ 대적광전인등 올린신 분

5 신찬엽

◎ 단청등 올린신 분

1 세광하이테크 이정삼 2 이정삼
3 정원전설 정안식 4 정안식
5 (주)세림p&p 김주석 6 성진경
7 신진정밀 김기수
8 (주)디에이치하이텍, (주)동호정밀 우연희
9 청송약수삼계탕 민병철 10 김영자
11 대경정밀 박동근 12 경화사랑 한의원 안지영
13 수만수학학원 서명진 14 경산참숯가마 장우성
15 (주)산재수학학원 강현성·서경아
16 세원산업 이희동
17 대구운불련 호출택식 회장 조신 제외 회원 일동
18 신의내과 신현수 19 금강철강 오진환
20 조원불교 김수열·권봉자 21 권중훈
22 조철제 23 김판돈 24 금오불상 이성진
25 부창떡집 배해동 26 (주)안진정밀 안주선
27 (주)우성간설 권오성 28 이윤수

◎ 대등 올린신 분

6 삼암수산 7 경산참숯가마

◎ 본당 일년등 올린신 분

9 김태숙

◎ 초파일등 올린신 분

1 신구자

◎ 영가등 올린신 분(복위자)

31 최재훈 32 김영애 33 변우성 34 유기상
35 전대근 36 장미리 37 권영효 38 김종황
39 진우열 40 박은정

◎ 보현보살 불사하신 분

김난희 김동영

◎ 문수보살 불사하신 분

권태형 송영선 신현중 김동현 권민기

◎ 오백나한상 불사하신 분

128 신지원 129 박은혜 130 조현태 131 정원재
132 정사윤 133 전재술 174 고선순

◎ 달집연 불사하신 분

한이강소 영가 한박화림 영가 한박영래 영가

◎ 신중탱화 불사하신 분

김동욱 권미지 성열성 김명규 이원철
김희경 곽우영 심재찬 김민영 이재복
이재학 정미화 송지한 송일등 오단오
오택균 송경미 전재술 전배근 전배용
최동훈 최태식 김서원 서정훈 이은정
이항준 서영지 이재우 김종황 이영란
김근태 김민정 백철기 윤옥순 정성덕화

◎ 만불전 1인1원불 봉안하신 분

김민재 김도연

왕생극락하옵소서

- ◆ 亡조한기 영가의 기제사가 3월 1일에 있었습니다.
 - ◆ 황세윤님의 조상영가 위패봉안이 3월 2일에 있었습니다.
 - ◆ 권정화님의 조상영가 천도재 회향이 3월 4일에 있었습니다.
 - ◆ 亡김학근 영가의 기제사가 3월 6일에 있었습니다.
 - ◆ 亡권병오 영가의 기제사가 3월 11일에 있었습니다.
 - ◆ 亡황재영 영가의 초제가 3월 11일에 있었습니다.
 - ◆ 亡김용태 영가의 막제가 3월 12일에 있었습니다.
 - ◆ 亡최종률 영가의 기제사가 3월 12일에 있었습니다.
 - ◆ 亡정상화 영가의 기제사가 3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亡서일남 영가의 막제가 3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亡김정태 영가의 초제가 3월 17일에 있었습니다.
 - ◆ 亡허명수 영가의 기제사가 3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亡박영래 영가의 막제가 3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亡이성국 영가의 막제가 3월 23일에 있었습니다.
 - ◆ 이승만님의 조상영가 천도재 회향이 3월 23일에 있었습니다.
-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해오름 요양원 3월 소식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범왕사에서서는 무술년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달집태우기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실내에서 달집을 구경하시며 소원을 빌었는데요~ 나쁜 액은 달집에 다 태워 날려버리고 소원지에 적은 소원은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올 한해도 우리들의 최고의 소원은 바로 건강이겠지요. 어르신들, 보호자들, 직원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카리나의 맑은 소리

3월의 따뜻한 봄날에 찾아오신 오카리나 봉사자들의 맑고 고운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웃도 똑같이 맞춰 입고 오셔서 어르신들이 진달래꽃 같이 예쁘다고 하셨습니다. 오카리나 연주에 박수를 치시며 아는 노래는 따라 부르시며 즐거운 오후를 보내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주신 오카리나봉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술사의 화려한 쇼쇼쇼~

작년에 이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마술 봉사자께서 본 요양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은 마술이 하나하나 펼쳐질 때마다 신기해 하시고 놀라시며 재미있어 하셨습니다. 실수는 조금 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웃음을 주시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술봉사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소방자체교육 실시

본 요양원에서는 자체교육 및 외부교육을 통해 화재예방과 화재시 발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에는 기본적인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이 있었습니다.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화재 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으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안순정, 이경희, 손미령, 이수정, 배영숙(웃음치료), 무하스님(웃음치료), 윤수빈, 강진주, 윤성덕, 문자영(이미용)

| 단체 정기봉사자 |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최단장공연단(공연활동), 씨포터즈봉사단(야외나들이), 친한친구봉사단(놀이치료), 행복한교육이야기(놀이치료), 어린이왕자봉사단(놀이치료), 그루터기봉사단(놀이치료), 오카리나공연단(공연활동), 하모니카공연단(공연활동), 우쿨렐레공연단(공연활동), 색소폰공연단(공연활동), 더블유봉사단(놀이치료)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2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강병철 1만원	김수곤 5천원	박경자 5천원
강선옥 5만원	김수라 1만원	박귀분 1만원
강소남 5천원	김수자 1만원	박남희 3만원
강영도 2만원	김수희 1만원	박대희 5천원
고연숙 1만원	김순덕 1만원	박동규 5천원
고재옥 2만원	김순연 5천원	박상용 5천원
구정대 2만원	김순태(황궁주) 1만원	박성숙 5천원
권순득 1만원	김양순 1만원	박성용 5천원
권순미 1만원	김영호 1만원	박성은 1만원
권순영 1만원	김영희 5천원	박수진 1만원
권순칠 1만원	김옥경 1만원	박순남 5천원
권영철 5천원	김옥희 5천원	박순영 5천원
권오관 2만원	김외환 1만원	박원태 1.5만원
권오국 1만원	김용태 1만원	박인철 1만원
권지현 2만원	김우영 1만원	박종환 1만원
권춘자 3만원	김원형 3만원	박치민 5천원
금명섭 5천원	김의목 1만원	박희조 5천원
김건희 1만원	김정규 5천원	반룡사 1만원
김경자 1만원	김정숙 5천원	배수현 2만원
김경호 1만원	김정숙 5천원	배하수 1만원
김기덕 2만원	김정순 3만원	사공관 2만원
김기수 2만원	김정임 1만원	서동남 1만원
김대현 5천원	김정자 5천원	서준석(생인재) 1만원
김만기 5천원	김주현 1만원	서찬수 1만원
김명숙 1만원	김진성 1만원	성기옥 1만원
김명옥 1만원	노수정 1만원	손수연 1만원
김미자 1만원	도순자 1만원	송민경 1만원
김미정 1만원	류윤만 1만원	송정숙 5천원
김미희 1만원	류훈자(지일) 5천원	시명숙 1만원
김민주 1만원	문성섭 1만원	신구자 5천원
김봉숙 5천원	박경란 1만원	신귀화 1만원

신도식 1만원	이승연(정미화) 1만원	정민경 1만원
신임선 5천원	이승환 5천원	정숙자 1만원
신충호 5천원	이옥자 1만원	정숙희 1만원
신홍준 1만원	이용옥 1만원	정순옥 5천원
신화식 1만원	이유태 1만원	정시영 1만원
심규암 5천원	이인순 5천원	정연이 5천원
안경순 1만원	이임숙 2만원	정옥선 1만원
안명희 1만원	이재봉 5천원	정옥수 5천원
안희선 1만원	이전희 5천원	정인순 5천원
양나영 5천원	이정숙 1만원	정태교 5천원
양봉률 1만원	이정연 5천원	정혜숙 1만원
양지영 1만원	이정옥 1만원	조규인 1만원
양혜진 1만원	이정자 2만원	조성자 5천원
양희숙 1만원	이정화 1만원	조영석 1만원
여택동 5천원	이정희 3만원	조영주 1만원
오난옥 5천원	이정희 5천원	조장재(장민석) 1만원
용마관음사 3만원	이준우 5천원	진봉희 1만원
유경희(차목원) 1만원	이창수 1만원	채옥연 5천원
유명옥 1만원	이현옥 1만원	최금부 1만원
윤종수 1만원	이호동 5천원	최분규 1만원
이경자 1만원	이호조 1만원	최영희 1만원
이남희 1만원	임상덕 1만원	최윤희 5천원
이명숙 1만원	장성규 5천원	최창숙 5천원
이병노 1만원	장시원 1만원	한규매 1만원
이병희 1만원	장우성 5만원	한희록 1만원
이복희 1만원	장재혁 5천원	하유미 5천원
이상혁 1만원	장찬규 5천원	하(반점(박남숙)) 1만원
이석규 5만원	정경석 2만원	홍기학 1만원
이성건 4만원	정경숙 1만원	황미선 2만원
이성환 5천원	정명선 2만원	황영희 1만원
이수현 1만원	정무시 1만원	황학영 1만원

총합계 : 2,000,000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강미경 10,000원

◎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송재욱 김영애 박태숙 최영희 김경희
전상우(봉평메일)

◎ 지출내역

경관식 구입비 : 580,800원
간식비 : 302,070원
CMS수수료 : 44,000원
금융결제원요금 : 44,000원
SMS수수료 : 500원
케익 구입비 : 120,000원
상비약구입 : 4,000원
사무용품 구입 : 20,890원

총지출 : 1,116,26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주신 분

김갑영 어르신 보호자 : 치킨 3마리
김용희 어르신 보호자 : 피자 1판, 삼푸 10개
하모니카 봉사단 : 식빵 2줄
방지현 : 요플레 50개

해오름 요양원 새가족

해오름요양원 신규 입사자

박태숙 요양보호사, 최영희 위생원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이상혁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해오름 사람들

● 직원 동정

신규 입사를 축하합니다.

박태숙 요양보호사, 최영희 위생원

후원업체 소개



하호물류(주)(www.hahoe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쌍계사 - 화엄사 - 사성암 이동 순례법회

법왕사에서는 오는 4월 14일 경남 하동 쌍계사와 전남 구례 화엄사, 구례 사성암으로 백고좌법회 이동순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 세 사찰은 섬진강을 끼고 있는 명찰로 십리벚꽃으로 이름난 명승지이기도 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경남 하동 쌍계사



▲ 전남 구례 화엄사



▲ 전남 구례 사성암



- 일 시 : 2018년 4월 14일(토)
- 참 배 : 하동 쌍계사 - 구례 화엄사 - 구례 사성암
- 회 비 : 1인 4만원(점심은 사중에서 제공)
- 출 발 : 당일 오전 8시 법왕사 주차장
- 문 의 : 법왕사 종무소(053-766-3747)

해오름마을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림)
문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왕사는 해오름마을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오름마을은 현재 부지 4,500여평을 마련하였으며 조만간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무술년 2018년 소원성취 | 법당 일년등·사업등 동참 받습니다

- 사랑하는 이에게는 애정의 등을
-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왕생극락의 등을
- 소외된 이들에게는 관심의 등을
- 병고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쾌유의 등을
- 부모님께서는 보답의 등을
- 불교를 모르는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 고마운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 수험생에게는 학업성취의 등을
- 착한 이에게는 축복의 등을

- 사업등 - 100만원
- 가족등 - 10만원
- 영가등 - 5만원
- 문의 : 종무소 766-3747





법왕불교대학

초·중급 및 야간반, 아함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배워 신심과 원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불교대학 초·중·고급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지스님 직강으로 사찰예절을 비롯해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를 강의하며, 야간반은 주지스님과 외부 법사를 초빙하여 주요 경전을 강의합니다. 한편 아함경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초급반 2018년 3월 13일 개강 **주간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중급반 2018년 3월 20일 개강 **야간반**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입니다.

개설반	법사	주제	시간
초급반	주지스님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야간반	주지스님	지장경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특강반	외부법사	주요 경전(금강경, 아미타경)	추후 공고
아함반	연담스님	아함경(2년간 연속 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야간반	관일스님	법구경 특강	저녁 7시 ~ 8시 30분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